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사람기원문제를 과학적으로 밝히도록 이끌어주신 불멸의 업적

리 성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로 조선사람의 기원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해명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사람의 기원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과학적으로 밝히도록 이끌어주신 불멸의 업적은 무엇보다먼저 조선사람의 기원문제를 해명할수 있는 원칙적문제들을 새롭게 밝혀주시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구석기시대의 존재문제는 조선사람의 조상을 바로 찾는 문제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김정일전집》 제6권 224페이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구석기시대의 존재문제는 조선사람의 조상을 바로 찾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이 문제는 조선사람이 우리 강토에서 생겨난 본토기원의 단일한 집단인가 혹은 주변의 여러 지역들에서 이주해온 이주민인가 또는 여러 갈래의 집단들이 서로 뒤섞여 형성된 혼혈족인가 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조선사람은 인류력사의 려명기로부터 이 땅에서 하나의 피줄을 이어받으며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여온 슬기롭고 지혜로운 단일민족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지난 시기 조선사람의 기원문제가 일제어용사가들을 비롯한 반동사가들과 사대주의에 물젖은 일부 학자들에 의하여 심히 외곡되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일제어용사가들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공지와 자부심, 애국심을 말살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저들의 침략행위를 합리화하려는 정치적목적을 추구하여 조선사람의 기원문제를 란 폭하게 외곡하였다.

지난날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와 어용사가들은 우리 나라에서 구석기시대유적이 발굴되지 못한것을 기화로 하여 조선에는 구석기시대가 원래 없었으며 그때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신석기시대에 와서야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청동기시대를 거치지 않고 주변나라들의 도움으로 석기와 청동기, 철기를 함께 쓴 금석병용시대를 거쳤다고 떠벌이면서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를 외곡하였다.

일제어용사가들은 주체24(1935)년 당시 공사과정에 알려진 강안리유적(충전의 함경북도 종성군 동관리)의 골각기, 석기, 털코끼리뼈화석 등의 유물들을 구석기시대의것이 아니라 부정하였을뿐만아니라 그 자료마저 공개하지 않는 죄행을 감행하였다.

이처럼 일제어용사가들은 우리 나라에는 구석기시대가 없고 신석기시대에 이르러서야 여러 지역에서 모여온 이주민들로 조선사람이 형성된것처럼 외곡날조하였다.

그리고 반동사가들은 우리 나라 신석기시대유적들에서 나오는 유물들과 씨비리지방에서 나오는 유물들을 억지로 결부시켜 우리 나라 신석기시대주민들을 북방계통의 이주민이라고 떠벌이였다. 그들은 씨비리지역의 고아시아족이나 퉁구스족을 원류로 하는 이주민들의 후손이 바로 현대조선사람인듯이 조선사람의 기원문제를 제멋대로 날조해냄으로써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이자들의 외곡날조책동은 철두철미 우리 민족의 유구성과 단일성을 외곡말살하려는

책동의 산물이었다.

한편 사대주의에 물젖어있던 일부 학자들은 일제어용사가들의 견해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조선사람의 조상을 왕창같은데서 찾으려고 하였다.

이자들이 떠드는것처럼 우리 나라에 구석기시대가 없었다고 하면 조선사람은 신석기시대이후에 이주하여온 후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다른 민족의 역사를 외곡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그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우리는 이자들이 우리 나라 역사를 외곡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조선사람의 기원문제를 정확히 해명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단일성과 유구성을 론증하는데서뿐만아니라 우리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고 빛내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력사학계에서 선차적으로 해명하여야 할 조선사람의 기원문제도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명확히 해명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석기시대의 존재문제는 조선사람의 조상을 바로 찾는 문제이라고 새롭게 밝혀주심으로써 조선사람의 기원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과학적으로 해명할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사람의 기원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과학적으로 밝히도록 이끌어주신 불멸의 업적은 다음으로 조선사람의 기원문제해명의 옳은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에서 아직 구석기시대의 유물을 발굴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우리 나라에 구석기시대가 없었다고 단정할수 없으며 그런 주장은 과학리론적으로 그릇된 견해이라고 하시였다. 그리고 일부 력사학자들이 이러한 그릇된 견해를 가지게 된것은 사대주의사상에 물젖어있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고 하시면서 력사학자들이 사대주의사상에 물젖게 되면 자기 나라 역사를 외곡하며 민족허무주의에 빠지기마련이라고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력사적사실을 과학적으로 론증하려면 구체적인 사료와 함께 옳은 방법론이 안반침되어야 하며 구석기시대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방도도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연구사업을 진행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그래야 구석기시대의 유적과 유물들도 많이 찾아낼수 있으며 우리 나라의 구석기시대에 대한 과학적리해를 가질수 있다고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나라 땅은 지질구성으로 보아도 인류가 발생한 신생대를 충분히 거치였으며 사람이 태여날수 있는 자연지리적조건을 가지고있었고 먼 옛날의 우리 나라 자연기후조건을 놓고보아도 구석기시대에 우리 나라 땅에서 사람이 살지 않았다고 할 근거가 없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분포되어 살던 지역과 가까운 주변지역들에서 구석기시대유적들이 나오고 세계적으로 보아도 구석기시대유적들이 나온 지역들은 우리 나라와 자연지리적조건이 비슷한것이 많으므로 우리 나라에도 구석기시대가 있었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살았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에서 구석기시대의 존재문제를 과학적으로 론증하려면 우리 나라에 구석기시대가 있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석기시대 유적발굴사업에 큰 힘을 넣어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굴포리유적에서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발굴되었을 때에는 고고학자들이 큰 일을 하였다고 치하해주시고 우리 나라에도 구석기시대가 있었고 그때에 벌써 우리 나라 땅에서 사람이 살고있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고학에서는 발굴도 중요하지만 발굴된 자료에 대한 분석과 종합을 잘하여 옳은 결론을 내리는것이 발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유적의 년대를 확정하고 고고학적자료에 근거하여 당시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잘 밝히며 굴포리의 구석기시대 유적보다 더 오랜 유적과 유물을 찾아내야 인류발생의 려명기에 우리 나라 땅에서도 사람들이 살았다는것을 더욱 뚜렷이 확증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이와 함께 유적유물발굴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여 망탕하여서는 안되며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 높이고 유적유물들이 발견되면 통보해주는 체제도 세워야 한다고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에서는 1960년대초부터 구석기시대 유적들에 대한 조사발굴과 연구사업이 전면적으로 심화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구석기시대유적인 굴포리유적이 발견되는데 이어 구석기시대 전기유적인 황해북도 상원군검은모루유적을 비롯한 귀중한 구석기시대유적들에서 많은 유물들과 함께 인류화석들도 발굴되는 성과가 이룩되었다.

구석기시대 전기유적들과 함께 구석기시대 중기, 후기유적들에서 고인, 신인단계의 인류화석들이 수많이 발굴됨으로써 우리 강토에서 인류력사의 려명기인 구석기시대에 벌써 우리 선조들이 우수한 문화를 창조하면서 살아온 유구한 집단이라는것을 더욱 뚜렷이 확증할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가 인류진화발전과정을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거친 인류발생지의 하나이라는것을 명백히 론증할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룡곡사람, 승리산사람을 비롯한 신인들에 혈연적연원을 둔 《조선옛류형사람》뼈들이 많이 발굴되어 고대,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는 조선사람의 인류학적특징들과 비교연구됨으로써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태어난 이래로 오로지 하나의 피줄만을 대대로 줄기차게 이어온 단일혈통의 민족이라는것도 해명되게 되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사람의 기원문제가 주체적립장에서 과학적으로 해명됨으로써 일제어용사가들을 비롯한 반동사가들의 궤변의 부당성을 낱알이 짓부셔버리고 우리 조선사람은 우리 강토에서 태어나 인류력사의 려명기로부터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면서 살아온 단일민족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론증할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앞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구석기시대 유적발굴과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선민족제일주의로 무장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